

〈일반논문〉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노농운동

최 보 민 *

〈목차〉

- I. 머리말
- II.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시도
- III. 1924년 초 남부지역 노농단체의 연대와 '남선 단결론'
- IV.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과 노농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1923년 3월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 전반을 관장하고 새로운 공산당 결성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려총국의 국내 조직이다.

1923년 3월 설립 이후 고려총국 내지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세포단체를 마련하며 조직화를 진행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에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집중적인 조직화 활동이 전개됐다. 두 번째는 조직화 사업의 주요 대상이 각 지역 노농단체였다. 이러한 특징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은 국내의 무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전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1922년 12월 코민테른 결정서에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총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국 내지부는 조직화 활동을 통해 획득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1923년 9월 전국적 노농단체 연합체인 '조선노농총동맹' 결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식민권력의 강력한 압박으로 실패했다.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고려총국 내지부는 1924년 1월부터 남부지방의 노농단체를 중심으로 연맹체 결성을 추진했다. 이때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선 단결론'을 주장했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 단결론'을 통해서 서울파 공산그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주요한 세력 기반이었던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또 고려총국 내지부의 '남선 단결론'은 그들의 조직결성 정책, 코민테른과의 관계, 소작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동론 등에 영향을 받았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 단결론'에 기반해 1924년 3월 8일 대구 노동공제회 회관에서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전조선노농단체 연합에 관한 것이다.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도 고려총국 내지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남선 단결론'이 제기됐다. 남선노농동맹은 창립총회 이후 곧바로 전국의 노농단체 연합을 위한 교섭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파 공산그룹을 강하게 압박했다.

□ 주제어

고려총국 내지부, 중립당, 북성회, 조선노농총동맹, 남선노농동맹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과 노농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다. 고려총국은 1923년 2월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 전반을 관장하고

국내외의 공산주의그룹(이하 공산그룹)을 통합해 새로운 공산당 결성을 담당할 조직으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설립됐다.¹⁾ 설립 이후 고려총국은 1923년 3월 국내의 사회주의 식민지 조선 내부에 사회주의운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부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고려총국 내지부이다.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은 독자적인 집행기관과 세포단체를 갖춘 공산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공산그룹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냉전적인 역사 인식의 영향으로 ‘무원칙한 파쟁을 일삼는 파벌 다툼’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²⁾ 이러한 냉전적 역사 인식의 영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식민지시기 사회주의운동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고, 일련의 연구를 통해 1920년대 공산그룹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³⁾

그러나 여전히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한 공산그룹의 활동에 관해서는 더 많은 부분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공산그룹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당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대중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규명한다면 당대 사회주

1) 고려총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청계연구소, 1986, 401~420쪽;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당 창립과정-꼬르부로 국내부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8, 1994, 105~106쪽;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384~396쪽; 조철형,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을 참고.

2)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이정식·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돌베개, 1986; 서대숙 지음·현대사연구회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85.

3)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임경석,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현실』 28, 1998; 박철하, 「북풍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현실』 28, 1998;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현실』 28, 1998;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1919~1923』, 일조각, 2003;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선인, 2006.

의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에 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이 글에서는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과 노동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1923년 3월 설립되어 1924년 5월 무렵 해산할 때까지 불과 1년 정도 활동하는 데 그쳤지만 1920년대 전반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조직이다. 따라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1920년대 전반기 공산그룹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고려총국 내지부 설립 과정과 참여 주체 그리고 활동에 관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해명됐다.⁴⁾ 특히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에 관해서 박철하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박철하는 고려총국 내지부의 성립과 해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⁵⁾ 그러나 박철하의 연구는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 양상을 전반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하나는 1923년에 진행된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과정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1924년 남선노동동맹 창립을 전후로 한 한반도 남부지방 중심의 노동단체 연대 움직임에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난 고려총국 내지부의 노동운동 방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왜 서울이 아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형성되었으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4) 고려총국 내지부의 설립과 참여 주체 그리고 활동에 관해서는 임경석,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사립』 48, 2014; 임경석, 「13인회 연구」, 『역사와 현실』 94, 2014를 참고.

5)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당 창립과정-꼬르뷰로 국내부를 중심으로」; 박철하, 「1920년대 사상단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II.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와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시도

1923년 3월 설립된 고려총국 내지부에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공산주의 그룹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력은 ‘확대 중립당’이다. 확대 중립당은 1922년부터 활동한 공산주의 그룹인 중립당을 모체로 형성됐다. 중립당은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공산주의 그룹을 지칭한다.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했던 두 개의 공산주의 그룹인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중립당’으로 불렸다. 1922년부터 활동한 중립당은 당시 사회주의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상해파 공산그룹에 맞선 투쟁을 주도했을 정도로 조직적 역량을 갖춘 공산주의 그룹이었다.⁶⁾ 반면 고려총국 내지부에 참여한 중립당 이외의 공산주의 그룹의 경우 조직의 규모도 작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고려총국 내지부에 참여한 이후 중립당에 흡수되었고, 그 결과 형성된 것이 확대 중립당이다.

한편 확대 중립당과 함께 고려총국 내지부의 또 다른 한축을 구성한 세력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사회주의 세력인 ‘재일본조선인공산주의단체’였다. ‘재일본조선인공산주의단체’는 1922년 일본 도쿄에서 결성된 사상단체 북성회(北星會)를 기반으로 활동했기에 ‘북성회파’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북성회파 공산그룹이 고려총국 내지부에 참여한 것은 1923년 5월부터였다.⁷⁾ 그런데 북성회파 공산그룹이 고려총국 내지부에 참여

6) 중립당의 결성과 활동에 관해서는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중립당과 무산자동맹회」, 『승실사학』 13, 1999;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 연구」, 120~132쪽을 참조.

7) K.H.黨(北風會內共產主義秘密結社)代表 辛鐵·金泳, 「보고」, 1926년 2월 11일, 80쪽, ГАСПИ ф.495 оп.135 д.124 л.80.

한 방식은 확대 중립당과 달랐다. 확대 중립당의 경우 지도부는 물론 세포 단체까지 전면적으로 고려총국 내지부와 결합했다. 반면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경우 지도부 일부만 참여했다. 즉 자신들의 세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도부만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참여 방식에 관해서 기존 연구는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주요 활동 공간이 일본이었고, 공산주의 단체 통합운동 과정에서 상층 연합을 고수했던 북성회파 공산그룹 고유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연구는 설립 초창기 고려총국 내지부를 확대 중립당과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지도부가 결합한 상층 연합기관으로 평가했다.⁸⁾

여기서 고려총국 내지부가 참여한 세력의 지도부를 포괄하는 공동의 집행기구를 갖춘 조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려총국 내지부를 구성한 참여 세력의 활동이 개별적이라기보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적 활동으로서 성격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고려총국 내지부는 연합기관으로서 참여한 세력마다 규모도 달랐고, 참여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단일한 공산그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려총국 내지부가 참여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집행기구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은 참여 세력들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총국 내지부 참여 세력의 활동은 연합기관으로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 방침을 수행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설립 이후 고려총국 내지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세포단체를 마련했다.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 상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1923년 6월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는 총 12개로 서울에 5개, 지방에 7개가 있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지방은 신의주(新義州,) 평양(平

8) 임경석,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227~228쪽.

壤), 청주(淸州), 대구(大邱), 진주(晉州), 김해(金海), 부산(釜山) 등이었다. 일제 식민지시기 사회주의운동 세력의 세포단체는 합법적 사회단체 내부에 비밀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총국 내지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사회단체는 서울에 있었던 무산자동맹회, 조선노동연맹회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신의주 노동공제회, 평양노동동맹, 청주소작인조합, 대구노동공제회, 김해소작인조합, 진주노동공제회, 부산청년회 등이다.⁹⁾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고려총국 내지부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북도 등에 세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합법적 사회단체 내에 만들어진 세포단체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총국 내지부는 설립 이후 1923년 6월 무렵까지 각 지방에 세포단체를 구축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1923년 8월 다시 한번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가 전개됐다. 그것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활동 공간 변동과 관련이 있었다. 북성회파 공산그룹은 1923년 7월을 기점으로 활동 공간을 일본에서 국내로 변경했다. 북성회파 공산그룹은 본격적인 국내 활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순회 강연을 계획했다. 당시 관련 보도와 일제 경찰 자료를 종합하면 북성회파 공산그룹은 19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서울을 비롯해 평양, 개성(開城), 대구, 광주, 마산, 진주, 김해, 부산, 하동(河東), 원산(元山), 함흥 등지에서 강연을 계획했다.¹⁰⁾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강연 계

9) 임경석,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223~232쪽.

10) <北星會巡廻講演日程>, 《동아일보》, 1923.07.25.; <北星會巡廻講演團>, 《조선일보》, 1923.07.25.; <北星會講演團消息>, 《조선일보》, 1923.07.26.;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共產主義者ニ依シテ組織セラレタル北星會講演團其ノ他ニ關スル件」, 『情報』, 1923.8.1., 496쪽.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83>

획은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강연은 서울, 대구, 광주, 진주, 김해, 하동에서 진행됐다. 서울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된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순회 강연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며 큰 성황을 이뤘다.¹¹⁾ 이처럼 북성회파 공산그룹은 1923년 8월에 진행한 순회 강연을 통해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¹²⁾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성회파 공산그룹이 순회 강연을 진행된 지역이다. 당시 강연이 진행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진주, 김해, 하동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와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지역이었다. 이것은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순회 강연이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구와 진주에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대구노동공제회와 진주노동공제회가 순회 강연단 후원을 주도했던 것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¹³⁾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인 광주와 하동에서 순회 강연이 개최됐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광주이다. 1923년 8월 4일 광주 흥학관(興學館)에서 개최된 순회 강연의 후원을 주도한 것은 광주노동공제회였다.¹⁴⁾ 광주노동공제회는 1920

11) <北星會講演盛況中>, 《조선일보》, 1923.08.04.; <大邱의 北星會講演>, 《동아일보》, 1923.08.09.; <北星會講演 光州에서 盛況>, 《동아일보》, 1923.08.11.; <北星會講演大盛況>, 《조선일보》, 1923.8.16.

12) 박철하, 「북풍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 현실』 28, 1998, 76쪽; 임경석,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231~232쪽; 김진웅, 「1920년대 초 김약수 그룹의 사회주의 운동 방침과 다른 공산그룹과의 관계」, 『역사연구』 50, 2024, 318~319쪽.

13) <北星會巡講後援會>, 《동아일보》, 1923.08.03.; <北星會歡迎準備>, 《조선일보》, 1923.08.06.; <大邱의 北星會講演>, 《동아일보》, 1923.08.09.

14) <北星會講演 光州에서 盛況>, 《동아일보》, 1923.08.11.

년 8월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에서 출발한 단체이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사실상 와해한 1922년 11월 단체명을 광주노동공제회로 변경했다.¹⁵⁾ 광주노동공제회고 변경된 이후 상무집행위원장 서정희를 중심으로 김명수(金明洙), 설병호(薛炳浩) 등이 단체를 이끌었다.¹⁶⁾

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서정희(徐廷禧)이다. 서정희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결성에 참여하면서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다.¹⁷⁾ 그런데 서정희는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주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한 사람이기도 했다. 당시 서정희는 북성회파 공산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1923년 8월 광주의 순회 강연이었다.¹⁸⁾ 이것은 1923년 8월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순회 강연을 계기로 서정희를 중심으로 한 광주노동공제회가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고려총국 내지부가 주도했던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 움직임에 서정희와 광주노동공제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3년 6월 무렵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8년 8월의 순회 강연을 계기로 서정희가 주도했던 광주노동공제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 실제로 강연을 진행하지

15) <光州勞働共濟 創立>, 《동아일보》, 1922.11.18.

16) <光州勞働共濟總會>, 《동아일보》, 1923.08.01.

17)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235~236쪽.

18) 이성규, 『항일 노농운동의 선구자 서정희-근현대사의 현장에서 만난 외할아버지』 상, 지식산업사, 2006, 196~201쪽.

못했으나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함경남도 지역인 원산과 함흥에서도 강연 진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3년 8월 순회 강연은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국내 활동 기반 조성과 함께 고려총국 내지부의 지방 조직화로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도 고려총국 내지부의 지방 조직화는 꾸준히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총국 내지부 관계자의 자료에 따르면 1923년 말에서 1924년 초 무렵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한 단체가 있었던 지역은 인천, 진주, 사천(泗川), 김해, 마산, 김천(金泉), 광주, 순천(順天), 해주(海州), 평양, 신의주, 함흥(咸興), 김천(金泉) 등이었다.¹⁹⁾ 이 가운데 인천, 사천, 마산, 순천, 해주, 함흥, 김천 등은 이전 자료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아마도 이 지역들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를 통해 새롭게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집중적인 조직화가 전개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3년 6월 무렵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곳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경상남북도, 평안남북도, 충청북도 등에 존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곳은 경상남도였다. 이것은 곧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활동이 경상남도 지방에서 가장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1923년 8월에 있었던 순회강연 역시 주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순회강연을 준비할 당시 강연 개최 예정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한반도 남부지방 즉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였으며, 실제 순회 강연 역시 서울을 제외하면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의

19) 「高麗黨運動의 略史」, 1924년 9월 29일, 2~3쪽,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222а л.1~11.

식적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조직화를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대상이 각 지역의 노농단체였다는 점이다. 1923년 6월 단계에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의 무산자동맹회와 부산의 부산청년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노동자 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노농단체였다. 이것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의식적으로 지역의 노농단체와 결합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려총국 내지부의 방침은 내부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일원이었던 정재달은 코민테른에 고려총국 내지부의 사업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보고서에 고려총국 내지부 위원회의 결의안 내용이 담겨있는데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²⁰⁾ 이것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노동자 농민운동과의 연계를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고려총국 내지부 조직화의 특징은 그들의 설립 근거인 1922년 12월 코민테른 결정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민테른은 1922년 12월 결정서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은 국내의 무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전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²¹⁾ 따라서 1922년 12월 결정서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고려총국의 국내 조직인 고려총국 내지부 역시 식민지 조선의 무산계급에 기반을 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는 이러한 코민테른의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조직화를 통해 획득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운동 영역에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20) 「內地黨事業報告一」, 1923년(추정), 3~4쪽,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71a

21) 조철행,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308~314쪽.

것은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적 노동단체의 조직이었다. 1923년 9월 12일 조선노동연맹회 산하 12개 단체와 광주노동공제회, 광주소작인회연합회, 조선노동동맹(평양), 순천농민회연합회 등은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와 소작인단체를 통합한 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의 조직을 선언하고 발기총회를 같은 해 10월 5일로 예정된 조선부업품공진회(朝鮮副業品共進會)²²⁾ 이전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단체에 참여를 권유하는 통고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된 통고문을 보면 전국의 노동자·소작인 단체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조선노동총동맹’ 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창립총회에 출석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³⁾

그러나 조선노동연맹회를 중심으로 한 발기단체가 준비하던 ‘조선노동총동맹’ 발기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關東)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간토대지진의 영향이 식민지 조선에도 미칠 것을 우려해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²⁴⁾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 내 많은 사회단체의 활동이 제한됐는데 ‘조선노동총동맹’ 발기총회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종로경찰서는 조선연맹회를 중심으로 한 발기단체에서 발송한 통고문을 압수하고 발기총회 개최금지를 명령하면서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작업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²⁵⁾

1923년 9월에 나타난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시도는 전국의 노동

22) 조선부업품공진회는 식민지 조선의 부업 장려를 목표로 조선총독부와 조선농회가 함께 주관한 행사로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됐다. 부업공진회의 전개와 그 영향에 관해서는 정소영,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의 개최와 영향」, 『승실사학』 38, 2017을 참고.

23) 종로경찰서장, 「경중경고비 제10930호 2 朝鮮勞農總同盟會發起ノ件」, 『情報』, 1923.8.1., 698~703호. <https://library.korea.ac.kr/kyungsung/index.php?id=46010383>

24)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의 발생과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에 관해서는 김강산, 『간토대학살에 대한 식민권력과 조선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67~78쪽을 참고.

25) 『朝鮮勞農總同盟』, 《조선일보》, 1923.09.16.

자·소작인단체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1923년 ‘조선노농총동맹’ 결성을 주도한 것은 조선노동연맹회 산하 12개 단체와 광주노동공제회, 광주소작인회연합회, 조선노동동맹(평양), 순천농민회연합회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노동연맹회와 조선노동동맹(평양)은 1923년 6월 무렵부터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소작인연합회는 고려총국 내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서정희가 주도하는 단체였으며, 순천농민회연합회 역시 고려총국 내지부의 야체이카를 지도했던 이영민이 주도하는 단체였다.²⁶⁾ 즉 1923년 ‘조선노농총동맹’ 결성을 주도한 것은 고려총국 내지부였다. 그러나 고려총국 내지부가 추진한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 시도는 식민권력의 강력한 압박으로 실패했다. 그럼에도 고려총국 내지부는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III. 1924년 초 남부지역 노농단체의 연대와 ‘남선 단결론’

1924년 1월 10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진주(晉州)와 부산(釜山) 그리고 마산(馬山)의 노농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남노농운동자간친회(慶南勞農運動者懇親會)(이하 노농간친회)가 개최됐다.²⁷⁾ 그동안 군 단위를 중심

26) 〈光州勞動共濟總會〉, 《동아일보》, 1923.08.01.; 〈光州小作聯合 講演과 決意〉, 《동아일보》, 1923.05.17.; 〈順天農民聯合會〉, 《동아일보》, 1923.02.26.; 「高麗黨運動의 略史」, 1924년 9월 29일, 2쪽,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222а л.1~11.

으로 한 사회운동 단체의 연대는 종종 나타났지만, 도 단위를 아우르는 사회운동 단체의 연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경남지역의 간친회 개최는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다. 당시 노농간친회는 총 33개 단체에서 516명 인원이 참석했다. 노농간친회에 참석한 단체를 살펴보면 경남지역의 노농단체 24개가 참석했고, 대구(大邱)와 김천(金泉)지역의 노농단체 3개와 광주(光州)와 순천(順天)의 노농단체 6개가 참가했다.²⁸⁾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 행사였던 만큼 경남지역의 노농단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경남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노농단체의 참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경북지역인 대구와 김천의 사회단체가 참가했고 전남지역인 광주와 순천의 노농단체도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4년 1월에 개최된 노농간친회는 단순히 경남지역 노농단체만의 행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농간친회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일정은 진주노동공제회 소속인 조우제(趙佑濟)의 사회로 시작했는데 참석자들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일정은 둘째 날부터였다. 둘째 날부터 마지막 넷째 날까지는 노농간친회 참여 단체의 상황을 보고하고 당면한 과제에 관한 토의와 결의가 진행됐다.²⁹⁾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노농간친회의 마지막 날인 1월 14일의 상황이다. 이날은 전날에 이어 노농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반에 관한 각종 문제를 토의하고 결의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때 논의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재 식민지 조선의 노농운동 상황에 관한 논의였다. 당시 연사로 나선 김종범, 서정희, 최창섭(崔昌燮)은 서울에 있는 조선노농총동맹을 비롯한 노농단체가 쓸

27) 〈慶南勞農運動者懇親會〉, 《조선일보》, 1924.01.07.

28) 朝鮮總督府警務局, 「勞農運動概況-勞農總同盟解散ニルノ迄ノ情況」, 1924. 6.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경인문화사, 1988, 52~55쪽.

29)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25~34쪽.

데없는 대립을 벌인다고 비판하며, 노농간친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이들과 관계를 끊고 남선(南鮮)지역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³⁰⁾ 일제 식민지시기 식민지 조선의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은 서울이었다. 이것은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식민지시기 만들어진 사회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지역 노농단체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농간친회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당시 노농간친회 참여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다. 진주, 부산, 하동(河東), 광주, 순천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동조하며 서울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과 달리 서울지역의 노동운동단체와 관계를 단절하자는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던 단체도 존재했다. 진영노동공제회와 진해소작회의 경우 서울지역 단체와 관계 단절을 선언하지 않고 노농간친회에서 탈퇴했다.³¹⁾ 서울지역의 노농단체와 관계 설정에 관해서 노농간친회 내부에 이견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다수의 참여 단체가 서울지역의 노농단체와 관계 단절을 결의하자 노농간친회는 곧바로 남선노농동맹 발기준비회로 전환됐다. 당시 결의한 사항을 보면 남선노농동맹의 창립총회는 2월 29일 대구에서 개최하며, 전라남도과 경상남북도의 노농단체를 발기단체로 하고, 사상단체와 청년단체 가운데 노농운동에 관계하는 단체라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곧이어 남선노농동맹의 강령 및 규칙 기초위원으로 김종범(金鍾範), 서정희(徐廷禧), 정운해(鄭雲海), 이창수(李昌洙), 조우제 등을 선

30)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988, 48~49쪽.

31)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48~49쪽.

임했고, 창립 작업을 담당할 준비위원으로 김종범, 서정희, 정운해, 최원택(崔元澤), 김기수(金基洙), 조우제 등을 선임했다. 강령을 만들 기초위원들은 강령과 규칙을 만들어 창립총회 전날에 제출하고, 준비위원들은 노동단체에게 남선노동동맹회의 참가를 권유하는 임무가 주어졌다.³²⁾ 이후 남선노동동맹의 창립총회는 3월 1일 전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월 5일로 연기됐다가 최종적으로 3월 9일이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³³⁾

이상과 같이 1924년 초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노동간친회는 서울지역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단절을 선언하고 곧바로 남선노동동맹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것은 노동간친회가 개최될 무렵 이미 남선노동동맹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흥미로운 것은 노동운동에 관계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상단체와 청년단체에도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선노동동맹 결성을 주도한 세력이 노동단체는 물론 사상단체와 청년단체를 포괄하는 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남에서 노동간친회가 열리고 얼마 뒤 전라도에서도 새로운 노동단체 결성 움직임이 나타났다. 1924년 3월 4일 오후 3시 전라남도 광주 흥학관(興學館)에서 총 46개 단체 23명의 대표자가 출석한 가운데 전라노동연맹회(全羅勞動聯盟會) 결성대회가 열렸다. 전라노동연맹회 결성대회는 총 4일간 진행했는데 본격적인 조직결성은 둘째 날부터 시작했다. 둘째 날인 3월 5일 창평노동회(昌平勞農會) 대표 박이규(朴珥圭)를 임시 의장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결성대회가 진행했다.

먼저 광주노동공제회(光州勞動共濟會) 대표자 서정희가 무산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은 단결뿐임을 강조하고 그러한 단결의 시작으로 지방적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라노동연맹회 창

32)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50~51쪽.

33) <南鮮勞農同盟 創立總會延期>, 《동아일보》, 1924.01.22.; <南鮮勞農同盟 總會又延期>, 《동아일보》, 1924.02.15.

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전라노농연맹회는 다시 남선노농동맹에 참가해 대동단결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⁴⁾ 전라노농연맹회가 남선노농동맹과 뜻을 같이하며 3월 9일 개최 예정인 창립대회에 참가해 가맹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정희의 발언에 이어서 곧바로 전라노농연맹회의 강령과 선언을 가결하고, 규칙을 만들어 제정했다. 이때 전라노농연맹회도 그리고 규칙에 따라 각 부서를 나누고 부서의 직원들을 전형하고 전라노농연맹회 운영과 관계된 세부적인 사안들을 결정했다. 셋째 날부터 각 단체에서 제의한 사항들에 대해 토의와 결의를 진행하고 방침을 결의하는 것을 끝으로 전라노농연맹회 결성은 마무리됐다.³⁵⁾ 이처럼 전라노농연맹회는 매우 순조롭게 결성대회를 마무리했다. 단체의 강령과 선언 그리고 규칙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사전에 전라노농연맹 결성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노농연맹회 결성대회에서도 노농간친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노농단체와 관계 설정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연단에 오른 서정희는 서울지역의 노동단체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기에 진정한 노농단체로 보기 어렵고, 이미 남선노농동맹 참가를 결정한 이상 서울지역 노농단체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정희의 이 발언에 대해 전라노농연맹회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희의 발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파로 나뉜 것이다. 양측의 입장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정도로 팽팽했다. 결국 양쪽 사이의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기에 최종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³⁶⁾ 이처럼 경남에서 진행된 노농간친회와 마찬가지로 전라노농연맹회 결성대회에서도 서울지역 노농단체와의 관계가 주요한 논의 주제였다. 물론 전라노농연맹회는 노농간친회처럼 분명한 입

34)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80쪽.

35)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80~84쪽.

36)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87~88쪽.

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라노농연맹회도 노농간친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노농단체와 관계를 단절하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대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1924년 초 남부지방 노농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지역과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으로 연대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남선 단결론'이 제기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남선 단결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경남에서 개최된 노농간친회로 돌아가자. 노농간친회에서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은 김종범, 서정희, 최창섭이었다. 이 가운데 서정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성회파 공산그룹과 관계를 맺은 인물이었다, 김종범 역시 1922년 사상단체 북성회가 결성될 때 참여한 인물로 북성회파 공산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노농간친회에서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북성회파 공산그룹 나아가 고려총국 내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주에서 진행된 전라노농연맹회 결성대회도 살펴볼 수 있다. 전라노농연맹회 결성대회에서도 '남선 단결론'을 제기한 것은 서정희였다. 즉 1924년 초 남부지역 노농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남선 단결론'은 고려총국 내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주도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김종범, 서정희 등이 제기한 '남선 단결론'에 진주, 부산, 하동(河東), 광주, 순천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진주, 부산, 광주, 순천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 포단체 또는 관계가 있었던 사회단체가 존재했던 지역이었다. 비록 서정희가 제기한 '남선 단결론'에 어떤 단체들이 호응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라노농연맹회 결성대회에서 남선노농동맹 가입이 무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볼 때 '남선 단결론'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24년 초 남부지방의 노동단체에서 제기된 '남선 단결론'에 호응했던 세력 역시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가 있었던 지역의

사회단체였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의 상황이다. 연해주에 설립된 고려총국 1923년 말부터 은 내부에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됐다.³⁷⁾ 이러한 고려총국의 기능 정지와 연이은 해체는 고려총국 내지부 내에서도 영향을 주었고 곧 고려총국 내지부의 해산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고려총국 내지부가 정확히 언제 해산되었는가에 대해서 기존 연구의 견해는 크게 1924년 4월로 보는 견해와 1924년 5~6월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³⁸⁾ 현재로서는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1924년 4월 해산설을 채택하더라도 적어도 1924년 4월 이전까지 고려총국 내지부 조직은 유지되었고, 참여한 세력들 역시 내지부에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24년 초 한반도 남부지방의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남선 단결론'은 그 이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고려총국 내지부의 활동 방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총국 내지부는 1923년 9월 노동연맹회를 중심으로 전국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결성을 시도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인 1924년 초에는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선 단결'을 주장했다. 더구나 '남선 단결'을 주장하며 배제의 대상으로 언급한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조선노동연맹회, 조선노동총동맹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⁹⁾ 앞서 언급했듯 조선노동연맹회는 고려총국 내지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37) 고려총국의 기능 정지와 해체에 관해서는 강호출, 「재노령 고려공산당창립대회준비 위원회(오르그부) 연구」, 『역사와 현실』 28, 1998; 임경석, 「코민테른 고려총국의 기능 정지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71, 2010.

38) 박철하와 전명혁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해산은 1924년 4월로 판단했고, 임경석은 1924년 5~6월 사이에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39)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48~49쪽.

단체였고, 조선노농총동맹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설립 과정을 주도했던 단체였다. 그런데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는 자신이 주도했던 단체들과의 관계 단절을 불사하면서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고려총국 내지부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낸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해 일제 경찰은 ‘반대파’에 대한 대책이자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기존의 중앙집권주의를 버리고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해 지방적 운동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⁴⁰⁾ 여기서 ‘반대파’란 당시 비합법 공간에서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과 대척점에 있었던 서울파 공산그룹을 일컫는 것이다. 서울파 공산그룹은 1923년 3월 설립된 고려총국 내지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세력으로 고려총국 내지부와 대립했던 조직이다.⁴¹⁾ 특히 1923년 9월 무렵 고려총국 내지부가 ‘조선노농총동맹’ 결성을 준비하자 서울파 공산그룹도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을 위한 ‘조선노농대회준비회’를 발기하며 대응했다. 그리고 1924년 초에도 다시 조선노농대회 결성을 준비하며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⁴²⁾ 일제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고려총국 내지부에서 제기한 ‘남선 단결론’을 서울파 공산그룹에 대한 대응, 즉 사회주의운동 세력 내부의 ‘파벌 다툼’의 일종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일제 경찰만의 것은 아니었다. 서울파 공산그룹도 화요파 및 북풍파의 분자, 즉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이 자신들과 ‘대치(對峙)’하기 위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농단체 연대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⁴³⁾ 실제로 1923년 하반기부터 1924년 초까지 고려총국 내

40)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0~11쪽.

41) 서울파 공산그룹의 형성과 이후 고려총국 내지부와 대립에 관해서는 임경석,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 현실』 28, 1998;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를 참고.

42)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78~82쪽.

지부 연합그룹과 서울파 공산그룹은 합법·비합법 공간을 가리지 않고 상호 경쟁을 이어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서울파 공산그룹이 대중운동에서 발휘했던 영향력이다. 1920년대 전반 서울파 공산그룹은 식민지 조선의 중심인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대중운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파 공산그룹은 1920년대 초부터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단체인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일찍부터 서울파 공산그룹은 서울지역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국의 청년운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청년운동에서 발휘한 서울파 공산그룹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23년 3월 24일 개최한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이다. 또한 1920년대 초반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전국적 규모의 노농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와 조선노동대회 모두 서울파 공산그룹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다.⁴⁴⁾

반면 고려총국 내지부는 서울을 기반으로 대중운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이 서울파 공산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청년운동의 경우 경성무산자청년회와 토요일 같은 조직이 존재했으나 서울파 공산그룹의 서울청년회보다 대중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노농운동에서도 고려총국 내지부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던 조선노동연맹회가 존재했으나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1923년 3월 고려총국 내지부가 추진한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시도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마저 일제 경찰의 압박에 실패했다. 이

43) ソウル靑年會內部ノ秘密共產グループ(高麗共產同盟) 代表 金榮萬·崔昌益·李雲赫, 『國際共產黨執行委員會 貴中 ソウル靑年會內部ニ組織シタル秘密グループノ報告(高麗共產同盟)』, 1926년 1월, 10쪽. ГАСПИ ф.495 оп.135 д.131 л.7~26.

44)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2003, 219~226쪽;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237~241쪽.

러한 상황에서 고려총국 내지부는 대중운동에서 서울과 공산그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1924년 초 등장한 '남선 단결론'이다. 즉 이미 서울과 공산그룹이 주도하고 있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분명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가 제기한 '남선 단결론'과 그에 따른 남부지역 노농단체의 연대 움직임은 분명 서울과 공산그룹에 대항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사회주의 비밀결사 사이에 전개된 '파벌 다툼'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파벌 다툼'이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왜 고려총국 내지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노농단체 연대를 추진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제 경찰이 언급한 "중래의 중앙집권주의를 버리고 지방분권주의를 채택해 지방적 운동의 방침을 세웠다"는 부분이다. 물론 일제 경찰은 이것을 자신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이자 핑계'쯤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시각을 걷어내고 보면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의 노농운동 방침에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즉 1924년 초반 고려총국 내지부가 기존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운동 방침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운동 방침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주요한 세력 기반이 바로 한반도 남부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3~24년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있거나 관계를 맺었던 지방 가운데 대다수가 한반도 남부지역 즉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려총국 내지부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이 확고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노농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주장한 ‘납선 단결론’이 그들의 조직 결성 정책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경찰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기존의 중앙집권주의에서 지방분권주의로 변화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고려총국의 조직 결성 방침이 중앙 중심의 ‘하향식’에서 지방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총국 내지부의 채택한 이러한 ‘상향식’ 조직 결성 방침은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926년 1월 양명은 잡지 『개벽』에 당시 대중운동 상황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양명은 당시 대중운동을 양분했던 서울청년회와 4단체합동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청년운동 영역에서 서울청년회는 단체를 단위로 한 도(道)연합을 주장하는 반면 4단체합동은 군(郡)연맹을 도연맹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⁴⁵⁾

이러한 양명의 언급은 서울청년회와 4단체합동이라는 표면단체를 예로 들었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있었던 공산그룹들 사이의 조직론 차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명은 서울청년회 이면에 있었던 서울파 공산그룹의 경우 도 단위의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론을 가졌고, 4단체합동의 이면에 있었던 화요파·북풍파 공산그룹의 경우 군 단위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론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기존 연구도 앞서 언급한 양명의 글과 함께 부문운동의 교양과 훈련을 강조한 북풍회의 강령을 언급하면서 화요·북풍파 공산그룹 계열이 부문운동의 조직화·활성화를 토대로 한 ‘상향식’ 조직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⁴⁶⁾ 그런데 화요파와 북풍파 공산그룹이 고려총국 내지부를 구성했던 주요한 두 세력인 확대

45) 양명, 「如是我觀」, 『개벽』 65, 1926.1., 12쪽.

46) 유시현, 「1920년대 전반기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과 발전」, 『碧史李佑成教授 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하, 역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0, 799~800쪽.

중립당과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후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연구가 언급한 ‘상향식’ 조직론은 고려총국 내지부 시기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고려총국 내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던 것일까. 아마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대중운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서울파 공산그룹에 비해 고려총국 내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중운동에서 영향력이 부족했기에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코민테른과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3년 말 연해주에 설치된 고려총국 본부가 기능 정지에 빠지면서 고려총국의 국내 조직으로 만들어진 고려총국 내지부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시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운동의 향배가 코민테른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고려총국 내지부는 코민테른에 고려총국이 없이도 자신들만의 역량만으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을 통일하고 새로운 전위당 조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서울파 공산그룹이 큰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총국 내지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중적 역량이 서울파 공산그룹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연결을 보여주는 논리로 ‘남선 단결론’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려총국 내지부가 주축이 되어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곳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논농사지대로 소작쟁의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지역이었다. 1920년대 초부터 꾸준히 등장하기 시작한 소작쟁의는 자신들의 일상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이었다. 특히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소작쟁의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1921년 27건이었던 소작쟁의는 1923년을 기점으로 16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⁴⁷⁾

이처럼 1923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던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남부지방의 노농단체들이었다. 1922년 9월 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회는 소작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약 1,000여 명의 회원이 운집한 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회의 소작노동자대회는 1920년대 소작쟁의가 활성화되는 촉매로 작용했다고 평가받았다.⁴⁸⁾ 진주지역에서 시작된 소작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이어 전남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순천지역이다. 순천지역은 19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전라남도 동부권에서 나타난 대대적인 소작쟁의를 주도한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시기 최초로 ‘소작료 4할’을 제기한 곳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⁹⁾ 일반적으로 1920년대 초반까지 소작쟁의의 주요 요구는 소작료를 소득의 절반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1922년 진주지역의 소작쟁의에서도 ‘소작료 5할’을 요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그런데 순천지역은 이러한 일반적인 ‘소작료 5할’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작료 4할’을 주장한 것이다.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된 ‘소작료 4할’의 요구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924년 압태도 소작쟁의에서 ‘소작료 4할’ 요구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순천지역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⁵¹⁾ 그만큼 1920년대 초반 순천지역

47)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160쪽.

48) 김경태, 「1920년대 전반 소작쟁의의 확산과 ‘4할 소작료’ 요구」, 『사림』 55, 수선사학회, 2015, 172쪽.

49) 김경태, 「1920년대 전반 소작쟁의의 확산과 ‘4할 소작료’ 요구」, 176~180쪽. 소작쟁의를 포함한 1920년대 순천지역의 대중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박종린, 「일제시기 순천권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 『대중문화연구』 68, 2009; 강성호,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언론운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4.

50) 김경태, 「1920년대 전반 소작쟁의의 확산과 ‘4할 소작료’ 요구」, 173쪽.

51) 박찬승, 「1924년 압태도 소작쟁의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140

을 중심으로 제기된 ‘소작료 4할’의 요구는 대중적 파급력이 강했다.

흥미로운 것은 1923년을 전후로 남부지역의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지역은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1922년 진주지역의 소작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것은 진주노동공제회였다. 당시 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회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강달영이었다.⁵²⁾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22년 무렵 강달영은 무산자동맹회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무산자동맹회는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과 관계가 깊은 단체였다. 또 ‘소작료 4할’을 주장하며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순천지역 역시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 단결론’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농농사지대에서 분출하던 대중운동의 열기와 결합을 강조하는 ‘남선 단결론’을 제기함으로써 코민테른에 자신들의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고려총국 내지부가 가진 운동론의 반영이다.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 내부에는 일찍부터 소작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백우(申伯雨)를 들 수 있다. 1920년 10월 신백우는 『공제』 2호에 기재한 「소작인조합론」을 통해, 서구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문제가 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서구와 달리 농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소작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작문제는 서구에서 나타난 노동문제와 같은 착취-피착취 관계였기에 서구의 노동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³⁾ 신백우는

쪽; 김경태, 「1920년대 전반 소작쟁의의 확산과 ‘4할 소작료’ 요구», 187~191쪽.

52) 〈勞働共濟 晉州支會〉, 《동아일보》, 1922.03.01.; 김희주, 「진주지역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동국사학』 61, 2016, 349쪽.

53) 申伯雨, 「小作人組合論」, 『공제』 제2호, 1920.10.

이 글을 통해 당시 소작문제를 서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계급문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소작인들을 서구의 노동자와 같은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호명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20년대 전반기 신백우가 가졌던 위치이다. 신백우는 1920년대 중립당 그룹의 중요한 이론가이자 1923년에는 고려총국 내지부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확대 중립당’ 그룹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⁵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작문제를 계급 문제로 전유하고, 소작인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호명했던 신백우의 주장은 ‘확대 중립당’ 그룹의 운동노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한 축을 담당한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기원이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 『공제』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김약수 소그룹’이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 초 『공제』 편집부에는 맑스주의의 연구와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가 결성되어 있었다. 이 비밀결사의 구성원은 김약수(金若水), 정태신(鄭泰信), 정운해(鄭雲海) 등이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약수의 이름을 빌려 ‘김약수 소그룹’으로 지칭됐다.⁵⁵⁾ 이들은 『공제』 편집위원으로서 공제의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마도 신백우가 『공제』를 통해 소작문제에 관한 글을 실었던 것도 이들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김약수 소그룹’은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주도층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성회파’ 공산그룹 역시 소작문제를 중요한 운동노선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성회파’ 공산그룹의 일원인 정운해의 경우 1923년 3월 대구노동공제회 소속으로 대구지역에서 대대적인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소작문제에 중요성과 운동 방향에 관해 역설했다.⁵⁶⁾ 또

54) 임경석,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230쪽.

55)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56) 〈大邱에 農民大會〉, 《조선일보》, 1923.3.11.; 〈大邱에서 農民大會〉, 《동아일보》, 1923.03.13.

1924년 1월 경남노농간친회에서도 「소작운동과 청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소작문제와 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했다.⁵⁷⁾

이처럼 고려총국 내지부 연합그룹 내에는 소작문제에 기반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려총국 내지부가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은 소작문제를 매개로 한 노농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고려총국 내지부 구성원들의 운동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IV.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 단결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남 진주에서 노농간친회, 전남 광주에서 전라노농연맹회 결성을 주도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신들이 주장한 '남선 단결론'에 기반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1924년 3월 남선노농동맹의 창립대회는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라고 할 수 있었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노농동맹 창립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사전작업들을 수행했다. 창립사무소를 대구 노동공제회 회관 내에 설치하고,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지의 20여개 단체에 가입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준비위원이었던 정운해, 서정희, 김종범 등은 각자 부서를 정하고 각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기도 했다.⁵⁸⁾ 이런 준비위원들의 노력 덕분에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는 큰 문제 없이 개최될 수 있었다.

57)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31~32쪽.

58)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20쪽.

1924년 3월 8일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가 대구 노동공제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임시 의장에 정운해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첫째 날에는 먼저 창립대회에서 결의할 규칙 초안과 예산안을 미리 검토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남선노농동맹의 사무소를 대구에 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몇몇 대표자들은 경찰의 감시가 심한 대구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활동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⁵⁹⁾ 이에 대해 순천 이창수는 경찰의 압박에 굴할 필요가 없다며 대구를 고수하고자 주장했지만, 다른 대표자들이 이것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결국 사무소에 관한 문제는 창립총회로 이관되었다.⁶⁰⁾

다음으로 총회 순서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긴급한 토의 문제로 순천의 이창수, 김해의 인동철 등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그것을 새로운 토의 사항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다음 의장 정운해가 강연회 개최가 불가능함을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다 다수의 참석자가 강연회를 꼭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해서, 다시 당국과 교섭하는 것으로 하고 첫째 날 창립총회를 종료했다.⁶¹⁾

첫째 날의 일정은 본격적인 창립총회 이전에 준비 사항들을 점검하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실을 대구노동공제회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떤 지역의 어떤 대표자들이 대구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문제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세력들이 대구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 사무소를 두는 문제는 결정을 짓지 못

59)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24쪽.

60)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24쪽.

61)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25~126쪽.

하고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라노동연맹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남선노동동맹 창립대회 역시 공산그룹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날인 1924년 3월 9일 본격적인 남선노동동맹 창립총회가 시작되었다. 총 600명의 방청객이 운집한 가운데 대구 만경관(萬鏡館)에서 오전 11시 20분부터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창립총회는 각계각층에서 보내 온 축사와 축전을 낭독으로 시작했다. 축사와 축전을 낭독한 다음 참가단체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의사진행을 맡고 있었던 정운해는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대회 등 경성에 있는 노동단체에 가입된 단체는 남선노동동맹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했다.⁶²⁾ 이러한 조건에 전남 무안(務安)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 대표 서태석(徐邵晷)이 퇴장했다. 서태석이 오랫동안 조선노동대회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로서 퇴장과 함께 남선노동동맹을 탈퇴했다. 이후 자격심사에 통과한 가맹단체의 대표자들과 부대표들에게는 발언권 및 의결권이 부여했다. 그러나 대구 상미회(尙微會) 같은 사상단체들은 완전한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권한이 제한되기도 했다.⁶³⁾

참가단체의 자격심사 이후 전형위원을 중심으로 남선노동동맹을 운영할 중앙집행위원 49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상무집행위원으로 15명이 선정되었다.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을 지역으로 나눠보면 전남을 기반으로 둔 인물이 19명, 경남을 기반으로 둔 인물이 18명, 전북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 5명, 경북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 5명, 충남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 2명이다. 전반적으로 전남과 경남을 기반으로 한 인물들이 중앙집행위원회

62)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32쪽.

63)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32쪽.

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로 보면 대구가 5명으로 가장 많은 중앙집행위원을 배출했고, 다음으로 4명을 배출한 순천, 하동, 광주가 동률을 이뤘다. 2명의 중앙집행위원을 배출한 마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대체로 한 명의 중앙집행위원만을 배출했다. 도시로 보면 대구, 순천, 하동, 광주 등이 중요한 지역적 기반이었다.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 마지막 날은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와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토의를 통해 남선노농동맹의 운동 방향이 결정되었다. 당시 논의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작문제였다. 총 14가지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했다.⁶⁴⁾ 이것은 간단히 4가지 문제를 결의하고 끝난 노동문제와 크게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소작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만큼 남선노농동맹이 소작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전조선노동단체 연합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발언한 조동혁은 조선노동대회와 조선노농총동맹의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선 남선노농동맹이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종범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운동자라고 해도 사심을 가지고 운동하는 이가 있다면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⁶⁵⁾ 조동혁과 김종범은 서로 다른 수위로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경성에서 결성된 소위 '전국적인 노동단체'와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 '남선 단결론'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 '남선 단결론'을 이야기한 것은 조동혁과 김종범이었다. 두 사람은 1921년 9월

64)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40~141쪽.

65)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50쪽.

부산 운송노동자 총파업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북성회파 공산그룹과 가까운 인물들이다.⁶⁶⁾ 이것은 곧 두 사람 모두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남선노농동맹 창립총회에서 ‘남선 단결론’을 강조한 것은 고려총국 내지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정희는 당시 방청을 하고 있던 강택진(姜宅鎭)과 윤덕병(尹德炳) 두 명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으나 강택진과 윤덕병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당시 강택진은 서울파 공산그룹의 주요 멤버였고, 윤덕병은 고려총국 내지부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정희는 서울파 공산그룹의 멤버인 강택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이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됐다. 결국 창립총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정되지 못하고, 창립총회 이후 따로 전선노농운동자 간친회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상의 논의를 마치고 오후 7시 30분 창립총회는 폐회를 선언했다.

창립총회 이후 새롭게 전선노동자 간친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김종범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대신 전선노농단체연합기관기성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전선노농단체연합기관기성교섭위원회는 정운해, 이영민, 조동혁, 강달영, 서정희, 김종범, 이헌(李憲), 지건홍(池健弘), 이대명(李大噫), 팽삼진 10명의 교섭위원을 선정했다.⁶⁷⁾ 당시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대체로 고려총국 내지부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즉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노농동맹을 대중적 기반으로 해 전국적 노농단체 결성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것이다. 이들은 조선노농대회와

66) 慶尙南道 警察部, 『高等關係摘錄』, 1936년, 34쪽.

67)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58쪽.

조선노농총동맹 앞으로 서안을 보내 그들을 압박했다. 당시 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⁶⁸⁾

1. 귀회에 참가 또는 가맹단체는 각 단체로서 본 총동맹기성을 받기할 것
2. 본 전조선노농단체 연합기관이 성립에 들어갈 때, 귀회는 해체할 것
3. 귀회는 위 조선에 대해 3월 말일 이내에 의견을 회답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노농운동 단체를 결성할 것을 강제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경성에 존재하는 연합기관을 해체 할 것을 요구했다. 남선노농동맹은 조선노농대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체시키고자 했다. 게다가 3월 말 이내에 조선노농대회를 해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기일을 제한함으로써 조선노농대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것은 곧 조선노농대회 이면에 있었던 서울파 공산그룹에 대한 압박이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총국 내지부의 태도는 매우 완강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이 대중적 영향력에서 우위에 섰다고 판단했기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총국 내지부의 대중적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고려총국 내지부는 남선노농동맹을 통해 소작쟁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며 ‘소작료 4할’과 같이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주장을 내세운 남부지방 노농단체를 하나로 결집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파 공산그룹도 고려총국 내지부가 제기한 ‘남선 단결론’과 그에 기반해 만들어진 남선노농동맹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68) 이재화·한흥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158~159쪽.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총국 내지부는 설립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 세포단체를 마련하며 조직화를 진행했고 1923년 8월 순회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조직화 활동을 전개했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활동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23년 진행된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 사업은 한반도 남부지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6월까지 진행된 조직화 활동은 경상남도 지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고, 8월에 진행된 순회 강연 역시 전체적으로 남부 지방, 경상남도과 전라남도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조직화 사업의 주요 대상이 각 지역의 노농단체였다. 고려총국 내지부의 세포단체가 존재했던 단체를 살펴보면 노농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가 세웠던 대중운동 방침을 보면 노동자·농민운동에 방점을 찍혀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총국 내지부의 조직화의 특징은 1922년 12월 결정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은 국내의 무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전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코민테른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

두 번째, 1924년 초 고려총국 내지부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노농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를 추진하면서 '남선 단결론'을 주장했다.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가 주장한 '남선 단결론'은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결과였다. 먼저 고려총국 내지부는 이미 대중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서울파 공산그룹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남선 단결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총국 내지부가 서울파 공산그룹과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서만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총국 내지부가 '남선 단결론'을 주장한 것은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준 결과였

다. 먼저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가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직 결성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도 '남선 단결론'에 영향을 준 주요한 내용이였다. 또 당시 고려총국 내지부는 고려총국이 해산된 상황에서 새로운 전위당 조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코민테른에 자신들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려총국 내지부는 활발하게 소작쟁의를 전개하며 '소작료 4할'과 같은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주장을 제기했던 한반도 남부지방의 노농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총국 내지부가 소작문제에 기반한 운동을 중요시하는 운동론을 공유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2024.07.12. 투고 / 2024.08.05. 심사완료 / 2024.08.08. 게재확정)

[Abstract]

Organizations and Farmer-Labour Movement in Domestic Branch of Korean Bureau

Choi, Bo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in 1923–24,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armer–Labour Movement.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was the domestic organization of the Korean General Bureau, created in March 1923 to oversee the socialist movement in colonial Korea and to take charge of the formation of the new Communist Party.

After its establishment in March 1923, the Domestic Branch of Korean Bureau organized itself by establishing cell groups in Seoul and other provinces. Two characteristics can be seen in the organization of the Domestic Branch of Korean Bureau. The first is that organizing activities wer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is that the main targets of the organizing work were local farmer–labor organizations. These feature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mintern Decision of December 1922, which directed that the socialist movement in colonial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domestic working class.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used the networks it had gained through its organizing activities to attempt to form a nationwide federation of farmers' organiza-

tions, the Chosun Farmer-Labour General Confederation, in September 1923, but it failed due to strong pressure from the colonial power.

After the failed attempt to form the 'Chosun Farmer-Labour General Confederation',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promoted the formation of a federation centered on farmer-labour organizations in the southern provinces from January 1924. At this time,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advocated the 'South Chosun Unity Theory' centered on the southern provinces. Through the 'South Chosun Unity Theory',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sought to block the influence of the Seoul Communist Group and develop a movement centered o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heir main base of power.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s 'South Chosun Unity Theory' was also influenced by their organizational unity polic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mintern, and their movement theory, which emphasized the issue of sharecropping.

The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Bureau held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South Korean Farmer-Labour Confederation on March 8, 1924, at the Daegu Labor Mutual Aid Society Hall based on the South Korean Unity Theory. One of the important decisions made at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South Chosun Farmer-Labour Confederation was to unite farmer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At the founding meeting of the South Chosun Farmer-Labour Confederation, the 'South Chosun Unity Theory' was raised by officials from the Goryeo General Bureau. The South Chosun Farmer-Labour Confederation immediately formed a bargaining committee for the unification of farmers'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after the founding meeting

and put strong pressure on the Seoul Communist Group.

□ Keyword

Domestic Branch of Korean Bureau., Neutral Communist Party, The North Star Association, Chosun Farmer-Labour General Confederation, South Chosun Farmer-Labour Confederation

[참고문헌]

《개벽》, 《공제》, 《삼천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慶尙南道 警察部, 『高等關係摘錄』, 1936.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高麗黨運動의 略史」, 1924년 9월 29일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222а л.1~11.

ソウル青年會內部ノ秘密共產グループ(高麗共產同盟) 代表 金榮萬·崔昌益·李雲赫, 「國際共產黨執行委員會 貴中 ソウル青年會內部ニ組織サシタル秘密グループノ報告(高麗共產同盟)」, 1926년 1월, 10쪽. ГАСПИ ф.495 оп.135 д.131 л.7~26.

К.Н.黨(北風會內共產主義秘密結社)代表 辛鐵·金泳雨, 「國際共產黨執行委員會 貴中 報告」, 1926년 2월 11일, ГАСПИ ф.495 оп.135 д.124 л.77~92.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김경일, 『노동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1-일제편』, 청사, 1981.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서대숙 지음·현대사연구회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85.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 여강, 1993.

이성규,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근현대사의 현장에서 만난 외할

- 아버지』상, 지식산업사, 2006.
- 이재화·한홍구,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2, 경인문화사, 1988.
- 이정식·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돌베개, 1986.
-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1919~1923』, 일조각, 2003.
-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 _____,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역사비평사, 2008.
-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선인, 2006.
- 강성호,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언론운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호남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4.
- 강호출, 「재노령 고려공산당창립대회준비위원회(오르그부로) 연구」, 『역사와 현실』 28, 1998.
- 김경태, 「1920년대 전반 소작쟁의의 확산과 ‘4할 소작료’ 요구」, 『사림』 55, 2015.
- 김중섭, 「1920년대 지역 사회운동과 농민운동」, 『현상과 인식』 106, 2008.
- 김진웅, 「1920년대 초 김약수 그룹의 사회주의 운동 방침과 다른 공산그룹과의 관계」, 『역사연구』 50, 2024.
- 김희주, 「진주지역 사회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동국사학』 61, 2016.
- 박종린, 「일제시기 순천권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 『대중문화연구』 68, 2009.
- 박찬승, 「1924년 압태도 소작쟁의의 전개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당 창립과정-꼬르부로 국내부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8, 1994.
- _____, 「북풍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현실』 28, 1998.

- _____, 「1920년대 전반기 '중립당'과 무산자동맹회에 관한 연구」, 『승실사학』 13, 1999.
- _____,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신용하,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 창립과 노동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5, 1989.
-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현실』 28, 1998.
- 임경석, 「서울과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현실』 28, 1998.
- _____, 「코민테른 고려총국의 기능 정지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71, 2010.
- _____, 「고려총국 내지부 연구」, 『사림』 48, 2014.
- _____, 「13인회 연구」, 『역사와 현실』 94, 2014.
- 조철행,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 정연심, 「1920년대 진주노동계회의 조직과 농민운동의 발전」, 『부대사학』 21, 1997.
- 최선용, 「제1차 당대회시기 조선공산당의 전남 동부지역 조직과 활동」, 『아시아문화연구』 33, 2014.

